第238回國會
(臨時會)

2010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4月30日(水)

場 所 第3會議場(145號)

議事日程

1.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부
   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보고 ····· 1
   가. 문화관광부
   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10시1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국회(임시회) 제2차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부

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20명입니다마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각 정당별로 또 당무회의 등 여러 회의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결석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정족수는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시간은 위원님 1인당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孔魯明 위원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대리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 李滄東입니다.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장님과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

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킨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 또 붉은악마 등을 통한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표출하면서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등 우리의 국력신장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보여주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1986년과 2002년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금년 8월에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강원도 평창이 유치하고자 하는 동계올림픽대회는 세계 체육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개최해야 할 국가적 대사이자 마지막 남은 국제 종합스포츠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지난해 1월 IOC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여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 캐나다 벤쿠버와 함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에는 낮은 인지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IOC 현지 실사평가 등 주요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공관·체육계·경제계 등이 합심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는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다른 후보도시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IOC위원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정부의 지원의지 그리고 노력만큼은 월등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지원 조정반, 정부지원 총괄반 등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유치 예산·인력 지원, 경기장 건설과 철도건설 등 SOC 확충을 위한 총 3조 8771억 원의 정부보증, 재외공관을 활용한 홍보 및 유치활동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 속에 전방위의 강도 높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유치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강원도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참여정부의 국책 아젠다로 선정하여서 범정부적 유치역량을 총결집하고 IOC위원들에 대한 정확한 성향분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득표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체육행사 등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평창의 인지도 제고와 한국에 대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관심과 유치열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핵 관련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여 오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평창이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국민들의 성원과 열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유치결의안 채택과 함께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힘껏 도와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문화관광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泰煥 차관보입니다.

朴鍾文 체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치 추진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보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次官補 鄭泰煥 문화관광부 차관보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황, 정부지원사항, 유치전략, 정부지원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16일 동안 80여 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하는데 개최도시 결정은 2003년 7월 2일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당초 8개 도시에서 유치신청을 하여 IOC집행위원회에서는 4개 공식 후보도시만을 선정하였으나 베른이 유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평창, 벤쿠버, 잘스부르크 3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조사평가단에 의한 평창 현지실사가 지난 2월 14일부터 4일동안 있었습니다.

후보도시 경쟁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캐나다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노하우가 있고 기후·지형적 여건, 시설, 동계스포츠 대중화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며 평창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고 경기장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반면 한국은 최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국가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고 대륙별 순환개최, 분단국가 개최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지원사항으로서 우선 지원기구를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 유치위원장, 강원지사, KOC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두어 유치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고 그 아래에 문화관광부차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지원종합상황실을 국무조정실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정부지원조정반, 정부지원총괄반, 관계 핵심부처·기관에 대책반을 두고 지원요청사항과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지원사항으로 정부는 대회가 유치될 경우 23개 사항, 3조 8771억 원을 보증하여 원주 아이스하키경기장, 강릉 빙상경기장, 정선 중봉지구 스키활강경기장 등 8개 경기장 신설과 용평 알파인스키장 등 5개 경기장을 보완토록 하고 원주-강릉 간 철도를 2009년까지 신설하며 국도, 지방도, 시·군도 9개소 선형개량과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유치위원회에 유치활동 예산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추가 요청액 30억 원도 조만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 체육단체에 유치활동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이 유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기구를 본격 가동하여 현안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로게 IOC위원장 등 방한 시 IOC위원들을 청와대에 초청, 평창 유치 협조를 당부하였고 IOC 현지실사단을 대통령이 직접 격려한 바 있으며 주요 국제 체육·문화행사를 계기로 평창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 배포 정부발간 책자에 평창을 소개토록 하여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전략입니다.

개최도시 선정방법은 IOC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로 의결하고 1인 1투표권을 행사하며 비밀투표로 결정하되 1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최하위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도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국 지지경향이 있으나 IOC위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잘스부르크를, 영연방국가는 밴쿠버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쪽으로 이 지역 IOC위원의 지지를 얼마만큼 얻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분석을 해보면 지난 2월 IOC 현지실사를 계기로 잘스부르크, 밴쿠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북한 핵문제가 한국 유치전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및 미주의 많은 국가들이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2010년 동계올림픽의 인접국가 개최를 꺼리는 점도 동계올림픽 유치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본전략으로 IOC위원별 정확한 성향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접촉을 추진하며 기관별 연계체제 강화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평창의 장점과 동계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별 상황과 정서에 부합한 유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은 아시아의 단합과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 발전과 활성화의 기회임을 강조하고 아

프리카지역은 언론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음에 따라 개별접촉 강화 및 대륙별 순환개최를 강조하며 남미지역은 동계올림픽대회의 대륙별 순환개최와 개최지역 편중현상을 지적하고 한국 비우호지역으로 예상되는 유럽, 오세아니아지역은 역시 대륙별 순환개최와 분단국가의 올림픽 개최가 올림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전망은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체육계, 경제계 등의 총력 유치활동 전개로 대회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드림프로그램 등 평창의 차별화된 대회 개최계획 홍보와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 발전, 동계올림픽 대륙별 순환개최 등의 명분을 중도성향 IOC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국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정보·전략 공유를 통한 긴밀한 협조 속에 전방위의 강도 높은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면 한국의 유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참여정부의 국책아젠다로 설정하여 국빈 접견 또는 순방 시 대통령과 총리의 유치의지를 적극 표명하며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 해외출장 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치위원회, 재외공관 등의 요청사항을 신속히 지원하고 정보·전략공유로 유치활동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2일 투표현장에 한국 정부의 유치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주요 인사 체코 순방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앞서 5월 15일 개최되는 IOC 집행위원회 프리젠테이션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하여 정부 의지를 부각시키며 IOC 총회를 계기로 현지에 한국문화·체육행사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IOC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한국 IOC위원 세 분과 국내외 체육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국제체육행사를 계기로 참가 IOC위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KOTRA, 관광공사 해외지사, 유력 교민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경제4단체, 해외 진출 유력 기업체들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관하는 해외행사용 홍보물을 통해서 평창을 알리고 세계 관광박람회, 해외 상품전시회, 국제체육행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며 주요 외신에 특집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서 언론, 정부발행 각종 홍보물, 인터넷, 전광판 광고 그리고 전국 반상회 등을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국민 성원 유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처별 정부보증 사항과 유치지원위원회, IOC 현황, KDI가 분석한 대회개최의 의의와 기대효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오는 7월 2일 IOC 투표에서 개최도시 선정에 기필코 성공하여 국민의 성원과 열망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장을 대신해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와 유치위원회 및 강원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도지사 金振兢입니다.

국회 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점검과 격려와 지원을 위해 이런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孔魯明 유치위원장께서 유럽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金雲龍 IOC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평창이 지난해 8월 IOC에서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있었던 IOC의 현지실사를 통해서 올림픽 개최 여건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 다른 후보도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정도 일단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유치지지결의안 채택과 신속한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해외 유치활동 등이 큰 힘이 되었고 이런 점은 다른 후보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최도시 결정까지 꼭 63일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전방위적인 해외홍보, IOC위원에 대한 이해 확산, 국민적 지지분위기 조성 등 크게 세 갈래로 방향을 잡고 다각적이고 밀도있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님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유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崔勝浩 사무총장입니다.

方在興 기획운영사무차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崔勝浩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간단간단하게 요점 중심으로 보고해 주세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事務總長 崔勝浩 崔勝浩 사무총장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된 사항은 가급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최계획안, 주요 추진경과, 향후 활동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대회가 지향하는 비전은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올림픽 목표달성과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운동을 감동적으로 구현하는 가운데 동계스포츠의 아시아지역 기반확충에 기여하고 아울러 드림프로그램으로 명명한 다음세대를 위한 올림픽 추진 및 그린플랜을 통한 환경올림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용평을 중심으로 1시간대 이내에 형성된 동계스포츠벨트에서 개최하고 경기장 시설은 총 13개로서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등 5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보완 활용하는 가운데 활강, 스키점프, 스피드스케이팅 등 8개 경기장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폐회식장, IBC, MPC, 선수촌 등 대회운영시설은 경기장 인근에 임시 가설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정규모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 6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작년 1월 IOC에 대회유치를 신청한 이후 지난 2월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평창 현지실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대회개최지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의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향후 유치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드리면 평창이 국제사회에서 도시자체의 인지도와 시설여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여건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의 IOC 실사를 전환점으로 이러한 인식이 불식됨은 물론 올림픽 개최여건 면에서나 잠재능력 면에서 타 후보도시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개최의 장점과 명분으로 외부로부터의 용이한 접근성, 모든 경기장이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교통조건, 88서울올림픽과 작년 FIFA월드컵을 통해 입증된 우리의 경험과 능력,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높은 지지, 올림피즘의 목표인 평화비전,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기반확충 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함께 객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IOC의 일반적인 성향,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보다 IOC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는 특수성 등이 문제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장·단점으로 상호작용하고 변수가 되면서 유치결정 시까지 치열하고 팽팽한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은 전방위적 홍보에 두

고 평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이해확산을 위해 해외홍보 확대 강화, 주요 국제행사 대표단 파견 및 프리젠테이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IOC 위원들에 대한 지지확보 및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활동 계획으로 전방위적 해외홍보 확대·강화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위해 미디어, 스포츠관계자 및 주요인사 33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우리의 특장점 등을 담은 뉴스레터 등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주요언론을 초청한 프레스투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OC 출입기자단과 북유럽 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평창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남미, 유럽과 미주,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주요언론을 통한 집중 홍보를 위해 CNN, Euro Sports 등을 대상으로 평창을 소개하는 광고를 5월부터 실시하는 한편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광고 시에 한국 특집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계기로 평창이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조수미 씨, 이형택 선수, 박세리 선수 등 해외 유명인사, 스포츠 스타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해외 주요항공사를 통한 기내홍보 강화, 브로슈어, 리후렛, 비디오 등 각종 홍보물을 세계 주요 언어권별로 제작·배포하며 해외 주요 인터넷사이트와 유력 잡지를 통한 홍보활동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제행사·경기대회 등에 대표단 파견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GAISF총회, 유럽올림픽연합회 총회 등에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참가해 왔고 오는 6월까지 계속 각종 스포츠관련 국제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IOC 윤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경기 참가활동 지원과 병행해서 국제대회·행사의 국내개최 기회를 활용하여 평창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행사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해서 지난 4월초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남아메리카올림픽연합회 총회에서 3개 유치경쟁 도시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5월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IOC 집행위원회 및 동계·하계경기종목단체 연석회의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국제체육기자연맹 총회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체코 프라하의 IOC 총회는 개최도시가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계기이므로 대표단 구성을 비롯하여 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의 관건인 IOC위원들에 대한 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金雲龍 위원님께서 국제스포츠계의 폭넓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국내 IOC위원을 중심으로 개별 연관조직과 인맥을 활용하고 해외공관, 민간기업 등을 통한 이해확산을 도모해가면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그동안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치기원 1천만명 서명운동, Run To 2010 마라톤대회 개최, 국토대장정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비롯해 인터넷 서포터즈 그룹을 모집·운영 중이며 2010 Korea Dream 통장갖기운동 등을 관련단체, 기업 등과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앙 6개 방송사를 통한 TV CF광고와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주요 도시지역, 도로변 광고, 민간기업의 공식후원사 참여 확대, 범도민후원회의 구성·활동, 주요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양 간사들의 협의에 의해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나중에 일괄 답변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지정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龍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三 委員 李龍三 위원입니다.

제가 이 회의 이후 급한 일이 있어 먼저 질의를 하겠다고 요청해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을 확실히 유치해야 될 중대한 사업으로 보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렇습니다.

○李龍三 委員 7월 2일 프라하에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3개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노력에 따라 유치 가능성을 상당히 더 높일 수 있는,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龍三 委員 그러면 반반 정도에서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많은 변수들이 가로 놓여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李龍三 委員 알겠습니다. IOC 위원들의 최종 결정이 나야 그때 확실하게 알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문광부가 업무보고한 정도로만 해 주시면 거의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엄청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실제 우리 측에서 IOC 위원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한다거나 접촉한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 문제는 저보다도 金雲龍 IOC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리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 로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직접 로비를 안 하면 업무보고 내용처럼 간접적으로 인맥이나 재외 공관이나 경제계 인사들을 활용해서라도 맨투맨으로 IOC 위원들을 접촉한 실적은 있나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李龍三 委員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좋습니다.

아까 성향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성향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희들이 IOC 위원들과 국제대회 개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성향분석은 상당 부분 쌓여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이번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시에 대한 반전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반전국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도 중시하고 또 국익을 우선해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IOC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희들도 그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아랍권에 있는 IOC 위원들이 우리에게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127명의 IOC 위원 중 아랍권은 몇 사람 안 되고 유럽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나온 대륙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랍권은 물론이고 오히려 유럽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IOC 위원들이 한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龍三 委員 물론 IOC 위원은 그렇지만 그 나라 정서가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知彼知己라고 우리 경쟁국이 직접 로비를 할지 간접 로비를 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는지?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한 발 앞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치위원회 金振兢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국가 차원보다는 개최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아메리카의 큰 나라들은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 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마는 연방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보다는 해당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물론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해당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예.

○李龍三 委員 아까 장관님께 물어 본 것과 비슷한데, 강원도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과 실적이 좀 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을 우리 도와 유치위원회가 정부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李龍三 委員 소위 지역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출장을 보냈다든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더라도 인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몇 차례, 몇 명을 몇 개국에 내보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것은 아까 기본적인 통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OC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회의나 대회에는 우리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서 나가고, 그 외 민간 또는 각종 경기단체 또 시·군 차원에서 각 나라 또 지역별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龍三 委員 그러면 127명 위원 중에 우리나라 위원은 빼고 우리나라로 결정을 해 줄 성향이 나올 사람들도 빼면 적어도 한 70% 정도 이상은 남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다 몇 차례씩 간접적으로라도 접촉을 해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모임에서도 있었고요.

○李龍三 委員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중앙과 합동적인 노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공론유치 차원이고, 회의의 성격이나 출장 계획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과 중앙이 다 합쳐서 했습니다.

○李龍三 委員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사께서는 도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성 홍보행사에 주력해서 이것을 도지사선거 등에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다 좋은 일이고 또 혹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제가 많이 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거나 정치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는 이것을 제가 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李龍三 委員 그 문제를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사는 IOC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자꾸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내 도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위주의 유치전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이것이 다행히 유치가 되면 이것은 金振兢 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얻은 것이고 유치가 안 되면 정부의 관심 또는 노력 부족으로 유치가 안 됐다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면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란 말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또 앞으로 유치되었을 때와 유치되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한 번 유치해야 되고 강원도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三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고, 국회 차원의 유치특위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치가 되면 이것을 지사의 공으로 돌리지 말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정부 또는 특위 등 여러 관계기관의 노력 부족이나 관심 부족으로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李龍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李龍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출신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유치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관심사이고 꼭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 특위가 생긴 것도 꼭 유치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결성된 것이고 앞으로의 활동도 그 쪽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아까 李龍三 위원님이 유치 가능성에 관해서 물으실 때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수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가장 큰 변수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표할 수 있는 IOC위원을 116명 정도로 봤을 때 과반수가 58명인데 58명이라는 숫자가 유럽 IOC위원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또는 캐나다가 평창보다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유럽에서 다음 하계올림픽 개최 희망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또 미국에도 있는데 유럽에서 동계·하계 올림픽이 계속 열리는 것에 대해서 올림픽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판단하는 데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龍學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7월 2일 프하라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쯤은 정리가 다 되어서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나머지 두 달 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거든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목표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변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변수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龍學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고 또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올림픽유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문제인데 사실 유치위원회나 강원도 차원의 홍보는 제가 귀가 아플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홍보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李龍三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강원도 쪽에 편중된 홍보가 많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두 달 내에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러워요. 이 홍보전략에 관해서 현재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치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보고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가 30억을 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문광부에서는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수조정소위에서 거의 반 협박하다시피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해외홍보 부분에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광부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올림픽유치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제에 관해서, 저희는 크게 국내홍보와 국외홍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적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지, 지원 이런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국내홍보가 7월 2일 유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큰 비중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외홍보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외홍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부단위의 홍보가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국외홍보에 상당부분 집중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홍보는 돈을 쓰는 홍보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언론매체들을 활용해서 기자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올리는 방향에서 하고 있고 다른 홍보는 오히려, 내실있는 홍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제가 예산문제를 왜 거론했느냐면 작년에 저희가 실패한 여수엑스포 유치부분 때문입니다. 3년에 걸쳐 한 200억 정도의 국가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나중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흥청망청 썼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 국외홍보에 썼거든요. 저는 만에 하나 우리가 유치하든 유치하지 않든 간에 나중에 그런 잡음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광부 차원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체육회도 있고 KOC도 있습니다. 이 두 단체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광부 차원에서 어떤 협조요청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물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한체육회장께서 나오지 않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끊임없이 협조체제를 갖추고 그 협력체제가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올림픽유치위원회만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최근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은 모양이 참 좋습니다마는 관련된 체육단체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종 사회단체, 스포츠단체, 언론 등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광부 입장에서 유치 후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유치 후에도 이 열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동계스포츠 활성화, 스포츠종목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으는 전략이 지금부터 짜여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광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金振兢 지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보면 실사결과보고서가 5월 2일에

공개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3개 후보지 중에서 몇 등쯤 되겠습니까, 혹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것 없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등수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실사평가위원들이 3개 도시를 죽 돌고 평가한 결과 최종결론, 각 분야별 장단점 등을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갔는데 3개 도시가 공히 분야별로 각각 약간씩 장단점이 있고 결론은 모두가 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충분하다는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아직 공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예측컨대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뚜렷하게 격차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개 후보도시 중에 저희가 제일 하위라고 알려졌거든요. 실사 이후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었고, 많이 근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 외에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각 대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어디 대륙입니까, 유럽인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전 지역에 다 주력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얘기하라면 아시아권은 우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연관지역부터 하고 전통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소위 동계스포츠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도 역점을 두고 있고요.

결국은 유럽 쪽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또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서 우리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회의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金雲龍 IOC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활동을 많이 해주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學 委員 유럽은 사실상 표가 분산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IOC위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표가 좌우됩니다, 국가의 표가 아니라 그분들의 표이거든요. 그렇다면 IOC위원 개개인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인맥 활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金雲龍 위원님이나 이건희 위원님, IOC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세계 각국의 IOC위원들과 맺은 친교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은 고정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빼시고 그 외에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 주신다면 두 달 사이에 좀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분의 IOC위원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대충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면 바로 유치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연관해서 제가 잠깐, 아까 장관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李龍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이해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역홍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최지역 중심의 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IOC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지하고 찬성하며 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민들이 참여하고 홍보하며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7월 2일까지 계속되어야 되고 그것이 도내에서 하건 국내 어디에서 하건 간에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전부 IOC위원들 또 세계스포츠 무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해외홍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IOC 윤리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좀더 쓰더라도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출신지역이고 해서 관심이 많은 金龍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서 선거구는 서울입니다마는 늘 고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咸承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보고에서도 적시되어 있지만 벤쿠버나 잘스부르크는 지명도가 높은 데 반해서 평창은 지명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평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펠링이 잘못되었다고도 하는 수준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갖는 장점은 그 도시들은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캐나다가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좀더 신뢰가 가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장점으로 비쳐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문제를 위해서 발로 뛰고 밤낮 없이 머리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 문제는 비록 개최지는 강원도고 평창군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본 위원은 잘 느끼지 못해요. 외국에서 실사단이 왔을 때 청와대에 한 번 초치해서 만찬하고 유치위원들 하루 불러서 격려한 수준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 얼마만큼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IOC 위원들이 대체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얼마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나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태리 토리노라든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미비해 가지고 올림픽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도로도 제대로 닦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IOC위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받는 도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지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전담 인원과 상관 없이 관련이 있는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께서 자주 점검하시고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아주 큰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업무의 영역 속에서 다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7월 2일경 프라하에서 열리는 투표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咸承熙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월 2일 프라하 행사에 맞추어서 캐나다는 총리가,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날도 좋지만 그전에 미국 방문 후 북핵문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동유럽 순방을 해서라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좀 하세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咸承熙 委員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대륙순환 개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색이 국제올림픽인데 유럽과 미주대륙 또 선진국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2006년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열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1994년에 한 번 개최했던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가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시도를 하게 되면 소위 스칸디나비아 3국뿐만 아니라 덴마크나 네델란드 쪽에서도 관광수입을 기대해서 2014년에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가 했으면 하는 동조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그러려면 한 번쯤은 타 대륙에서 열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2006년은 이미 이태리로 픽스되었으니까 2014년에 노르웨이에서 열리려면 한 번쯤은 타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미주 대륙은 어차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논리적으로도 아시아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로 북유럽 IOC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현지 공관에 훈령을 내렸다든가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는 저희들이 설득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咸承熙 委員 노르웨이가 2014년에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咸承熙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에게 설득력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IOC위원들을 10여 명 이상 끌고 와야 승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태리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IOC에서 토리노로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점만으로도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이 3명이나 되니까 꽤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세계 각국의 IOC위원에 대한 성향분석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무한 것 같습디다. IOC윤리규정상 직접 접촉이 안 된다면, IOC위원 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나라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은 못 만나더라도 친한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친한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친한 정부 관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IOC위원을 직접 못 만나도 의회 의원을 만날 수 있고 정부 관료를 만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인이 친한 기업인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로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IOC위원이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자고, 쉽게 얘기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여흥을 즐기는 사람인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국정원장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를 강조했지만 지금 아무리 위성정보라든가 통신정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전 단계로서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인적 정보가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백날 나가면 뭐 합니까? 나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 한 두 사람 만나 악수하고, 갔다 왔다는 증거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막상 표를 던질 IOC위원한테는 누가 왔다갔는지 귀에 들린 적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돈 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전제는 다른 능력도 부족하지만 결국은 IOC위원들에 대한 성향분석, IOC는 위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3명의 IOC위원 중 2명이 한국을 지지하고 1명이 오스트리아를 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의무도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과거에는 유능한 기업인들이 가서 우리 과거식의 로비, 술도 먹고 건물도 지어 주고 하는 그런 로비가 통하던 시대에 우리가 88올림픽도 유치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는 국제 분위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그래도 내가 보기에 대단히 원시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IOC위원들에게 직접 설득 또는 로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咸承熙 委員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 달 남았으면 짧지만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지 공관에 훈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통

한 사람을 통해서 IOC위원 개개인의 성향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하면 말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金雲龍 IOC위원 같으면, 예컨대 국회 咸承熙 위원한테 얘기하면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와서 金雲龍 위원을 못 만나도 咸承熙 위원을 만나고 가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잘 전달할 것 아닙니까? 외국 사람도 사람이 사는 모습인데 왜 그것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 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도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위원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것이냐, 누구를 동원하면 그 사람 귀에 그래도 평창이라는 데가 괜찮은 데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질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나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이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에게 보고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리고 드림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00~700명을 초청한다, 이것 좋은 얘기입니다.

이태리 토리노도 이런 것을 통해서 동계시설이 없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IOC위원을 설득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 좋은 계획 같은데 이것이 말로 여기에 쓰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남쪽 더운 나라에 있는 IOC위원들에게 이번 7월에 우리 한국을 지지해 주면 틀림없이, 선거공약 하듯 헛소리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2004년부터 구체적으로 몇 명씩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스키 리조트로 초대해서 아이들이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나라 IOC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을 통해서나 우리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파타총회에 참석하러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지금 새로운 회장이 된 필리핀 관광장관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했고요, 그 분이 주도해서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의 선수단이 강원도에 와 가지고 동계 스포츠를 즐기고 훈련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래서 그것이 그 나라 IOC위원 귀에 들어가도록, 앞으로 내가 한국을 지지해 주면 나중에 이런 페이버가 우리나라한테 오겠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 표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사님 와 계시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李龍三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국위선양을 위한 또 한 번의, 월드컵 유치 때와 같은 국민적 단합과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SOC만 약 3조가 넘도록 투입되니까 강원도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데 저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익 앞에서는 당이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가지고 4개국 국방위원장 회담을 해 보면 어떠냐고 제의하니까 하원의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내정치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지만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 밖에 없다,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한국 국방위원장을 만나야 될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것은 백악관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인 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거물 정치인인 데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때 대단히 경이롭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李龍三 위원이나 또 宋勳錫 위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강원도 출신 위원들이 5명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사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이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강

원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그분들의 체면을 세워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배려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우선 정파를 초월해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를 나누어서 대처한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앞으로라도 유념하십시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리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IOC위원들의 성향, 또 연결 맥을 찾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국내 보도자료에 난다고 하더라도 전부 체크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림프로그램 등 해서 계속해서 IOC위원들에게 모든 정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咸承熙 위원님께서 꼭 유의해야 될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관계관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더 분발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광위 소속이기도 하고 스포츠 관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鄭範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우선 IOC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 후보 도시로 선정되게 노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문광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그동안의 경과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유치를 성공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후가 될 텐데요,

앞서서 咸承熙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문광부의 역할이 홍보 및 유치활동지원이라고 할 때 지역별, 국별 IOC위원들에 대한 면밀한 성향 분석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이라든가 국별 대책반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광부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지원 사업이 있는데 투표 당일 체코 프라하에서의 현장 지원활동도 주요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뿐 이미 유치 성과는 7월 2일 이전에 결정 난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투표권을 가진 IOC위원들에 대한 면밀한 성향 분석과 거기에 따른 국별, 대륙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준비체계와 지원체계를 조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별 대책반을 꾸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데 대해 차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위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특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로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의원들도 다양한 해외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평창 관련 홍보물을 지참하고 나가서 해당국 주요 정치인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조직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장관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국회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는지, 어떤 지원이 유용하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다음은 유치위원회 측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OC 조사평가위원회 실사가 2월 17일까지 있었는데 주로 어떤 점들이 실사조사단에 의해 중점적으로 체크가 되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전부 17개 항목에 걸쳐서 신청 파일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최 여건과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의 개최 계획입니다.

나라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의 지지도, 주민의 지지도까지 포함하는 교통, 숙박, 문화행사 등 17개 항목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현지에 확인 나와 가지고 사실대로……

○鄭範九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시지요.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교통여건, 경기장 여건, 경기장 시설 배치 계획, 숙박, 미디어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鄭範九 委員 특별히 지적받았던 점들이 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경기장 배치 계획을 용평을 중심으로 강릉, 원주까지 했는데 교통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선수들이 움직일 때 거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숙박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몇 가지 시설들은 비용 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는지의 정도였을 뿐 그렇게 많은 지적은 없었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러면 5월 2일 공식보고서가 나오면 IOC위원들의 판단에 아무래도 이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렇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회 측은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저희들이 지금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열흘간의 소명 내지 보완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다음에 지금 SOC 투자가 상당해서 3조 4000억 규모인데 사실 80%는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를 전제로 이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유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부 기본계획이 2012년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림픽이 유치되는 2010년에 맞춰서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겨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鄭範九 委員 지금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유치는 거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동계올림픽도 상당 부분 시설파괴가 전제되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적지로 얘기되는 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때문인데 불가피하게 환경 훼손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원도나 유치위원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3개 시설 중에서 환경 쪽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새로 지을 정선 중봉지구의 활강경기장이 문제이고 나머지는 도시 내에서, 또는 현지에 있는 리조트 내에서 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하고 이번에 그린 플랜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했는데 IOC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중봉지구는 저희가 아주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선언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鄭範九 委員 강원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을 잘 이해합니다. 강원도가 관광지로 제공은 되지만 실제로 강원도민들이 거기서 누리는 혜택은 없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

서 버리고 간 쓰레기 뒤처리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가 자연과의 친화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올림픽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팸플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팸플릿 홍보물인데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애를 써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 홍보물을 너무 우리 내부자 시각으로 보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 거의 마지막 44쪽에 보면 왜 평창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Maxim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라는 챕터가 있는데 평창지역이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될 성격의 것이지 평창이란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외국 IOC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지역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본다고 할 때, 아마 이 홍보물을 만든 사람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놓은 것은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인들의 시각으로는 이런 절개지가 드러나 있는 것,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 때는 내부자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홍보전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홍보를 그냥 국내 홍보전문팀에게 외주제작을 주고 계십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주관하면서 리뷰 내지 필요한 것은 해외에서 같이 합니다.

○鄭範九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이렇습니다. 평창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경쟁도시인 벤쿠버라든가 잘스부르크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평창을 알리는데 홍보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명도가 절대 열세에 있는데 이렇게 점잖고 얌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외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기본 컨셉이 부족한 것 아닌가, 지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평창을 알리고, 평창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홍보의 최우선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음풍농월하는 식의 점잖은 홍보물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홍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평창 유치를 위해서 뛰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 적극적인 투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우선 환경에 관한 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절개지 사진은 이것이 계속 2차, 3차 나가는 것인데 좋은 사진으로 바꾸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올림픽이 열리면 그 지역의 발전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장 근지역은 평가와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IOC가 또 그런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컨셉을 조금씩 바꾸면서 하는데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잘스부르크와 벤쿠버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컬러, 같은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 저런 점을 잘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혹시 문광부장관께서 지금 이 기회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기법이라든가 홍보방식에 있어서 약간 덜 세련되어 있

거나 그렇게 기교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점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 홍보 중에 얼마나 진실이라고 할까 의지가 담겨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IOC위원들에게 그런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鄭範九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IOC위원이시고 또 그동안 IOC부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라디오·TV분과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OC위원장이 되실 뻔 했는데 참 아깝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金雲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지요.

○金雲龍 委員 강원도 국회의원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출생지와 고향은 대구이지만 6·25 사변 때 강원도에서 소대장 근무를 했고 학교 다니다가 가서 국가유공자가 되어 8만 원씩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와 인연이 많고 또 용평동계아시안게임 때 위원장하면서 그것을 성공시켰고 또 KOC 위원장 시절에 용평하고 무주를 투표에 부쳐서 용평이 신청서를 내도록 결정했다가 화형식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강원도 국회의원이 안 나오셨더라도 다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참고가 될 만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치위원회, 문화관광부, 강원도가 합심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다른 국제경기위원회처럼 다 유치해 온 다음에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주고 법령 만들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번에 꼭 유치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고 지원해 주는 위원회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치위원회 중심으로 각 기관이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하고 운동시합은 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조금 장밋빛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장밋빛보다 조금 덜한 컬러로 끝까지 뛰어야지, 아까 보니까 성향과 성분을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성분도 별로 연구가 안 되어 있고 득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마 88올림픽 했고 월드컵 했고…… 88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월드컵은 중앙일보에 의하면 누가 돈을 몇 백 억 갖고 다녀도 안 돼서 그 당시 절대군주인 사마란치한테 YS하고 나하고 해 가지고 공동개최를 겨우 했잖아요. 12표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의 개최능력을 88, 월드컵 이런 것을 내세워서 코리아가 개최한다, 평창이라고 하면 평양 이러니까 코리아라고 내세운 것은 좋습니다. 조금 장밋빛 그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두 달 남았으니까 홍보, 명분 이런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륙별…… 그러면 왜 중국이 하고 바로 한국이 하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목표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총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팀워크를 통해서 공동 책임 또 각자 책임을 지고 득표를 하느냐, 지금부터 두 달 동안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툭 하면 내 이름이 들먹들먹 하는데 나도 한계가 있지요. 내가 아무리 IOC의 최강자라 하더라도 추종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것도 챙겨야 다 따라오는데…… 그것만 믿고 내가 20명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건희 한 표, 박용성 한 표, 체육회 한 표, 이렇게 해서 끌어 모아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미리 정해 놓고 대략 마음을 먹고 가도 거기서는 조금 변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고 자원을 투입해서 타깃을 공략해서 표가 꼭 60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결석자, 위원장 투표 안 하고 우리들 안 하고 인도네시아 안 하고, 피지 안 하기로 하고…… 그것을 다 하면 58~59, 60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오사카가 지난번 하계에 나와서 다섯 표 나왔어요. 여수가 54 대 34이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팀워크를 해서 공략해

야 됩니다.

지금 IOC위원들 안 만난다고 하지만 만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작년 GAISF총회에도 IOC위원이 20명이나 왔는데 거기에 강원도도 오고 KOC도 오고 또 멕시코 IOC총회에도 로비에 20명 비실비실 왔다 갔다 하고 다 만나고 인사하고 잡아당기고 했는데 안 만난다고 해요.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아까 평가단보고서, 평가단 보고는 낙제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IOC위원들한테 돌렸지요? 잘한 것에는 전부 밑줄을 치고 다 얘기했는데 나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온돌방밖에 없다, 숙박이 모자란다, 거리가 멀다, 시설이 어떻다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그런 것을 다 돌리는 이런 졸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예산 500억 가지고 유치활동 겸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도 유치자금 20억 받고 동계 종목 단체가 7개나 있고 실제 다 유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위원장도 유치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데 참석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득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모으느냐, 그러면 나와서 공동책임을 져야지 내가 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부, 외교부…… 외교부는 안 나와도 되지요. 외교부가 너무 설쳐서 마이너스 효과도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대한체육회, 강원도 다 나와야지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 우리가 지원위원회도 밀어서 꼭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핵 문제는 지난번에 로게하고 사마란치를 만나서 2010년까지 다국 차원에서 해결된다고 다 얘기해서 평가보고서에 핵 문제가 위험스럽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돌렸잖아요. 아까 돌렸다는 거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홍보가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 다 재수했어요. 시드니도 하고 아테네도 하고 베이징도 하고 바르셀로나도 하고 솔트레이크도 하고 전부 재수했어요. 재수 안 한 데 하나 있어요. 그거 예만 자꾸 드는데 나가노는 96년에 아틀랜타가 있으니까 98년을 나가노로 주고, 나가노가 돈 얼마 쓴 줄 알아요? 그리고 바로 2002년에 솔트레이크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허황된 장밋빛으로 도민이나 국민에게 당연히 될 것처럼 하지 않고 항상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 대비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수미 홍보대사도 중요하고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요새 기자단을 해외에서 많이 불렀지요? 그것은 참 잘한 것인데 윤리위원회 규정 자꾸 들먹거리지만 다른 행사 통해서 다 하잖아요? 이번에 세계태권도연맹은 누가 한푼 도와주는 데도 없고 정부예산도 안 타지만 30주년에 내가 초청해서 IOC위원들 11명 오잖아요. 윤리규정에 유치위원회하고 유치도시 방문, KOC 유치를 하고 있는 그것만 접촉을 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래서 11명이 옵니다.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력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두 달밖에 없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득표하는 방향으로 각자 책임을 지고 누가 무엇을 했느냐, 또 내가 해 놓은 데만 찾아가면 안 되지요. 도지사께 그거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알면 거기만 찾아가서 내가 한 건 했다고 그러려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요.

내가 정보를 전 세계에서 전화로 다 들어요. 페루에 가서 뭐 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뭐 하고, 이태리 가서 이태리 위원 만나니까 '잘스부르크 같은 데서 해야지 뭐 이런 데서 하느냐' 그런 얘기 듣고 나왔다는 거 다 들었는데 전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주어도 다 듣기는 듣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하려면 책임을 다해서 공동책임, 각자책임 이래서 득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나는 나대로 한계가 있지만 내가 혼자서 60표 움직일 수 있으면 혼자서 IOC위원장 하고 다 해먹지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만 믿지 마시고 나머지 20표 30표 각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꼭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재수하는 나라도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말이야, 4월 25일 인터넷에 '유치 동향' 이래 놓고 확인도 안 하고 이상한 거 올렸더라고요. 내가 IOC 부위원장에 출마를 한다고요. 나 부위원장 4년 했고 위원장 출마해서 차점한 사람이고 집행위원 8년 했는데 어라운더링에 '그럴지도 모

른다.'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2장짜리 타블로이드인데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은 평창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정세를 봐서 후보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그 후 문제이지 그런 어라운더링의 추측을 문광부가 인터넷에 옮겨서, 알아보니까 국제체육과장이 했다고 하대요.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협심해서 두 달 동안 열심히 하도록 장관님, 지사님 우리 전체 문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특별히 제가 의견을 드릴 것은 없고 아까 인터넷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 알아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실 金雲龍 위원님께서 직접 본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도 金雲龍 위원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IOC위원 20~30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IOC위원 직접 접견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윤리강령상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金雲龍 위원 만나시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金雲龍 위원 한 분이 20표 이상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정부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金雲龍 위원님이 신바람나게 더 많이 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체육회 관계되는 사람 참석했어요?

나는 그것도 참 유감이네요. 사실 이번에 대한체육회장을 여기에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특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한 명 보내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를 듣고 보고를 해야 할 텐데 대한체육회 직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광부장관께서……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방청석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거 전부 모니터링해서 위에다가 보고드려서 착오 없도록 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장관께서 대한체육회장의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한 가지 빠뜨렸는데 만약에 유치가 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가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은……

○委員長 金學元 우리 국회 차원입니까?

○金雲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그것은 일단 유치만 되면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유치특위가 지원특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회 본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치특위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입니다마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광주 출신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金敬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위원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 문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위원장이신 강원도의 金振兢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여러 모양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대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대한체육회 총 예산이 500억이고 이번 유치를 하는 데 대한체육회에서 20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한체육회의 일이지 동계올림픽위원회의 일입니까? 그리고 종목도 7개가 있는데도 대단히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왜 오늘 안 나왔는지, 또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2일, 정확히 말해서 두 달 이틀 후면 체크 프라하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죽 보고받는

과정에서 참 애는 썼지만 굉장히 안일한 자세로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金 위원께서는 평창이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제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주가 결정되기를 굉장히 희망했거든요. 그때의 열정을 이제 평창에 쏟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IOC 위원들이 12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나라는 8개 나라 중에서 셋으로 좁혀졌는데 IOC 위원님들이 캐나다의 밴쿠버를 더 잘 알겠습니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평창을 더 잘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 번째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로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우리 한국의 저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홍보 면에서 국내 홍보와 국외 홍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2일에 결정되지 않으면 국내 홍보고 국외 홍보고 사실상 2010년은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이틀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국내 홍보가 별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16강을 기대했지만 4강에까지 들어가는 기적적인,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월드컵 유치하려고 할 때의 그 열기가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雲龍 위원께서도 굉장히 많은 경륜을 가지신 위원이시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안일하고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장관님과 집행위원장이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으로 계획이 잡혀 있게 보고서가 읽혀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또는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데 있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일인 것처럼 비관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혀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金敬天 委員 장관님, 알았습니다.

집행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악조건에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IOC 위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분석·대응해 나가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IOC 위원들이 127명이니까 64명은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은 구체적인 것이 손에 잡혀서 그야말로 다시 점검하는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면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유치를 안 해도 좋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돈만 흥청망청 써 버리는 결과가 되면 그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갔더니 해양박람회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맹점이 이거구나. 우리의 외교활동, 홍보활동이 얼마나 미흡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등등을 거울 삼아서 문광부나 집행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여기 위원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만큼 급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그 외 책임 있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난제로 꼽을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파병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랍권 IOC 위원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1표 1표가 중요한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군인들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랍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미운동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유럽권의 지지를 못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표나 유럽 표나 어쨌든 간에 127명의 표를 겨냥하면서 반쯤은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盧 대통령께서 5월에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미국에 표가 3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3표를 어떻게 겨냥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한미동맹50주년 또 이민10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IOC 위원 명단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만나는 위원들이라든지 또한 사회단체 활동하는 사람…… 르네상스 파운데이션이라고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단체인데 거기 이사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찬도 별도로 초대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의원들도 다수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OC 위원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손 안에 들려 주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선거전에서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 정열과 용기와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월 8일에 떠나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미국에 있는 IOC 위원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는 하계올림픽이 2004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계속해서 아시아권에서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金雲龍 위원님을 비롯해서 IOC 위원이 세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두 분은 활동도 전혀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한테 나누어서 그 명단을 주십시오.

아무리 金雲龍 위원님이 활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2, 30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金雲龍 위원님이 2, 30표를 책임지시도록 한다면 李健熙 위원이나 朴容晟 위원님도 그 반쯤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원이 3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할 때는 투표권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도 있을 수 없고 민·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총력을 경주해서 할 때 그만큼 우리나라에 신인도라든지 경제적인 부를 갖고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문광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강원도를 움직이게 하고 전국을 움직이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예산이 60억이고 대한체육회 예산이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유치하는 데까지 지금 얼마를 목표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유치예산으로 금년에 100억이 서 있습니다. 작년, 금년 해서 141억입니다.

○金敬天 委員 전체 합해서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예,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30억, 추가로 최근에 정부 지원에서 30억, 그리고 우리 도비, 그다음에 기업체 후원이 있으면……

○金敬天 委員 그러면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141억입니까?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자, 이제 시간이 1분 44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받아들여 주셔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먼저 집행위원장님부터 결의에 찬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오늘 金敬天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조언을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상세히 잘 아시고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하는데 보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것은 나라를 위한, 그야말로 애국애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에 우리 한국을 월드컵처럼 알릴 수 있는 의지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李滄東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른 일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 일에는 대단히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인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짐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문화관광부 업무가 워낙 여러 가지로 방대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노력만큼은 제게 허용된 시간이나 능력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IOC 위원들을 접촉해서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제적인 노력은 세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하고 있고 또 거의 1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은 물론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마치 하루하루 전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제 5월이 30일, 6월이 31일, 7월이 2일 해서 정확히 63일이거든요. 63일을 정확히 표를 만들어서 점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또 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敬天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언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嚴虎聲 위원님께서,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특위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嚴虎聲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고 해서 문화관광부장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학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등 외국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嚴虎聲 委員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4월 23일 유럽의회 의원 6명이 수행원을 한 4명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EU의원외교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유럽의회 방한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하고 싶다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해서 제가 청와대에 직접 얘기하고 청와대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16시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님과 면담했습니다.

이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대통령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하지 못해서……

○嚴虎聲 委員 배석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청와대를 방문하고 싶다는 대표단의 요청을 받고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청와대 방문시켜 주겠다,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켜 주겠다, 그러나 나도 당신들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내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위원인데 당신네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당신네들 나라의 IOC 위원들을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다.' 6명의 위원들이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위원은 '내가 직접은 몰라도-우리말로 치면-한 다리 건너면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신네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꼭 IOC 위원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저한테 'OK'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떠날 때 제가 그 중의 한 분 정도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협조를 부탁하는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있더냐?' 그랬더니 'I can not remember.'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의례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기에는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조금 안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린다면 사실상 국가에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는 국가원수의 말 한마디, 관심 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만나는 외국의 정치인, 기업인, 학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인사 등등…… 대통령께서는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 아무래도 비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표명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특별히 건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아울러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좀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함과 동시에 TV 뉴스에도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다른 지역사람들은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한다는 것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22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설치하는 광고판이 있어요. 지사님도 그런 것 알고 있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기둥을 2개 세워 가지고 여러 개 걸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맨 윗부분에, 문맥은 연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런 플래카드 하나씩 붙여 놓으면, 또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의 저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자기와 막역한 사이에 있는 사람이 외국의 IOC 위원일 수도 있고, IOC 위원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아, 평창에서 이것 정말 유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 플래카드를 보고 자기가 외국의 IOC 위원이나, 그 자제나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해서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국민의 전 저력을 이런 데 결집시키기 위해 현수막 설치 작업을 진행해 달라, 사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정치하니까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마는 현수막 하나에 1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220개 해봐야 얼마입니까? 2200여 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것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아무래도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이라든지 공항, 여객터미널, 고속터미널 이런 등등의 곳에도 이런 현수막 하나쯤 모양 좋게 해서 붙여 놓으면 여기를 드나드는 외국인들 또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외국인한테는 우리 전 국민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력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협조가 되겠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예,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관광호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문광부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고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嚴虎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끝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金敬天 위원님!

○金敬天 委員 한 말씀만 드리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은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길을 내든지 경기장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냥 절단시키면서 그러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인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로 축소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들이 대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일괄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관부터 일괄적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일괄답변과 함께 아까 金敬天 위원님과 鄭範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OC 위원 소속 국가별·지역별 대책반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있는 1급 공무원, 문화관광부 차관보, 외교통상부·산자부 1급 공무원 등 고위 실무급 대책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유치활동 전반에 걸친 점검을 하고 또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IOC 위원 소속 국가별 또

대륙별로 유치활동전략을 가지고 주로 재외공관이나, 지금 여기 金雲龍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체육계, 경기단체장 그리고 경제계, KOTRA,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기업의 인사들이 본격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알기로 李健熙 IOC 위원이나 朴容晟 IOC 위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하고 문화관광부 내에 정부종합상황실, 대책반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특위 위원님들께서 유치활동을 위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총력을 경주해서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치를 위해서 지도말씀을 주실 것은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저희들이 도움을 청할 것은 따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지사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2010平昌冬季올림픽誘致委員會執行委員長 金振兢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열어 주신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도 아주 적절했고, 또 저희들한테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아이디어와 조언도 주셨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유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들, 또 활동이나 모든 부분에 모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여러 조치들을 해 주신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기회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런 액션을 보여 주고 있다는 얘기를 모든 언론 내지는 위원들이 다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다른 기회가 있다면 계속적인 지원활동이나 의지를 보여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 오늘 회의하신 자체도 저희들이 바로 가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모든 IOC 위원들이나 해외언론에 프레스 릴리스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 나타나 있고……

아까 金雲龍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오늘 특위에서 예를 들어 유치가 되면 지원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검토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해외에 나오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예로 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88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또 작년에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렀을 뿐만 아니라 4강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결과를 잉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겠다는 전 국민 86%의 한결같은 염원과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특히 96%가 넘는 많은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우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언 이런 것들을 좀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7월 2일 프라하에서 열리는 IOC총회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뭐니 뭐니 해도 IOC 위원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투표를 하는 IOC 위원들에 대한 면밀한 작전계획을 007작전 이상 가는 작전으로 세밀하게 짜 가지고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IOC 위원들 주변의 인적인 요소는 과연 어떻고,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나 취미는 어떻고, 또 그 본인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또 그 IOC 위원의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세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각각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그때그때 수정·보완하면서 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 미주지역이나 구주지역에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IOC 위원들을 그러한 성격으로 해서 설득해 가지고 우리 편으로 몰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릴리함메르시장을 만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노르웨이의 하이버그 같은 평가위원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바터의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金雲龍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IOC 위원들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점을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한 계획을 짜서 남은 계획을 짜질 없이 집행해 주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을 업무에 참고해서 바로 해 주시고 또 따로 보고하실 사항들은 따로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 주신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열심히 관심이 많으신 金振兢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出席委員(11人)

金敬天　金容鈞　金龍學　金雲龍
金學元　嚴虎聲　尹景湜　李龍三
李海鳳　鄭範九　咸承熙

○請暇委員(2人)

全甲吉　崔燉雄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千浩仙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관	李滄東
차관보	鄭泰煥
체육국장	朴鍾文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金振兢
사무총장	崔勝浩
기획운영사무차장	方在興